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 열어

- 희생자 추모를 넘어,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에 대한 희망 담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이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과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을 계기로 제작된 기념비는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이후 다양한 탈북민 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제작되었다.

기념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 2024년 7월 14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바 있다.

기념비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이 조망되는 뒤뜰에 설치되었다. 앞으로도 이 기념비의 모양을 딴 상징물을 제작하여 해외 동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그 사용을 독려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기념비의 의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막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태영호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제막, △헌화 및 묵념, △기념사, △북한이탈주민의 편지와 시 낭독, △탈북작가 미술작품 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영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기념비의 의미,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숭고한 용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태영호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의 기념사가 뒤따랐으며, 제22대 유일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박충권 의원도 서면축사로 제막식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비가 조성된 취지에 맞추어, 탈북과정에서 가족과 이별해야 했던 한봉희 한의사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이어 유명 시인 단체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오은정 탈북민 시인이 시를 낭송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전망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선을 넘어온 이야기’ 작품 전시를 관람하였다. 이 전시는 분단의 선, 생사의 선을 넘어,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삶에 대한 의지를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민 작가인 최성국, 심수진, 강춘혁, 선무 작가와 함께 유명 사진작가 조선희, 폴란드 사진작가 팀 프랑코가 참여했다.

통일부는 이번 제막식을 통해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고, 탈북과정의 고된 여정을 견뎌 마침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민 한 분 한 분을 보호하며 따뜻하게 포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붙임1. 제막식 개요

붙임2. 편지 낭독 및 시 낭송 참여자 소개

붙임3. 탈북 작가 기획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 개요. 끝.

담당 부서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하무진 (02-2100-5920)
		담당자	사무관	서정숙 (02-2100-5923)
	국립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	책임자	과 장	이창성 (02-901-7050)
		담당자	사무관	김종민 (02-901-7061)

붙임 1

제막식 개요

1 행사 개요

- 일 시 : 2024. 8. 1.(목) 10:30 ~ 11:30
- 장 소 : 오두산 전망대 뒤뜰(제막식), 1층 기획전시실(탈북작가 전시관람)
- 참석자 : 60명 내외 * 탈북민 및 정착지원 종사자 등

시 간	소요	주요 프로그램(안)	비 고
10:30~10:32	(2')	• 개식,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1부 행사 진행: 이영아 아나운서
10:32~10:37	(5')	• 기념비 의의 설명 및 제막	
10:37~10:40	(3')	• 헌화 및 묵념	
10:40~10:52	(12')	• 기념사 :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10:52~10:56	(4')	• 추모 편지 낭독 : 한봉희 한의사	
10:56~11:00	(4')	• 시낭송 : 오은정 시인	
11:00~11:02	(2')	• 기념촬영	1층 기획전시실 2부 관람
11:02~11:10	(8')	• 이동	
11:10~11:30	(20')	• 탈북작가 기획 전시전 '선을 넘어온 이야기' 관람	
11:30		• 폐회	

2 기념비



「자유를 향한 용기」

이 공간과 조형물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은 고된 여정에 위안이 되고 임진강 너머 보이는 북녘 땅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통일의 미래를 전달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14일

사진	사연 소개
	<p># 한봉희 한의사(1976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탈북, 2003년 한의대 입학, 현재 한의사로 활동 중 • 아버지가 탈북과정 중 중국에서 강제로 복송 되었으며 이후 다시 탈북하여 감옥에서의 수기를 글로 남긴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는 다시 복송되어 고문 끝에 돌아가심. • 한봉희 한의사는 아버지의 수기를 담은 책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펴냈고, 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원채인권상을 제정해 운용 중임. <p>* 책 영문명: 「Her Father's North Korea Story」</p>
	<p># 오은정 시인(1992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경성군 출생, •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는 사고로 사망, 어린 여동생은 할머니와 살게 되고 2009년 홀로 탈북 • 북한의 여동생과 고향을 그리며 시를 창작 중 • ‘작은 시앗 채송화’라는 시 동인에서 신인상 수상

붙임 3

탈북 작가 기획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 개요

1 전시 개요

- 작품 주제 : '선을 넘어온 이야기', 분단의 선, 생사의 선을 넘어,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탈북민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전시
- 참여 작가: 최성국, 심수진, 강춘혁, 선무, 조선희, 팀 프랑코 총 6인

2 세부 전시 내용

① 팀 프랑코 (폴란드 작가)

-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들의 얼굴과 검푸른 배경의 색으로 그들의 두려움, 용기, 희망을 드러냄.



팀 프랑코 작가 작품 전경

② 선무 (탈북민 작가)

- '세상에 부림 없어라'라는 대표작품은, 그림 속 아이들의 획일화되고 과장된 모습을 통해 북한 사회의 모순과 실상 비판



선무 작가 작품 전경

③ 조선희 * 사진작가이자 대학교수로 활동

-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 물건들을 찍은 것으로, 이제는 과거의 기억이 된 북한에서의 생활을 보여줌.



조선희 작가 작품 전경

④ 강춘혁 (탈북민 작가) * 화가이자 래퍼로 활동

- 이상화 교육을 받는 북한 어린이, 학생들의 생활을 그림.



⑤ 최성국 (탈북민 작가) * 웹툰 작가로 활동

-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만화로 그려 북한의 실태를 알림. 전시 중인 「로동신문」은 북한의 '로동신문'을 패러디한 제목이며, 뇌물이 난무하고, 이상화가 일상을 지배하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줌.



⑤ 심수진 (탈북민 작가) * 웹툰 작가로 활동

- 전지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 제작, 사라질 낙엽에 희망을 새김.

